



한림읍에 도내 첫 ‘작은 영화관’ 내달 개관

교통편의 고려·일반 영화 관람료의 70%

제주에서는 최초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이 내달 개관한다.

한림읍(읍장 홍경찬)은 지역주민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림 작은 영화관’ 건립을 완료하고 내달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 한림읍 한림체육관 부지에 위치한 ‘작은 영화관’은 지상 1층, 연면적 473.98㎡ 규모로, 2개의 상영관(1관 59석, 2관 39석)과 매점, 휴게시설 및 최신 영상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영화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2월말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과 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영화상영관 등록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등을 거쳐 내달 말 개관할 예정이다.

한림 작은 영화관은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작은 영화관 건립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2018년부터 건립이 추진됐다. 당초 총 사업비 10억(국비 5억, 지방비 5억)을 투입해 한림체육관 내 야외공연장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작은 영화관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영화 음향공간 확보 및 상영관 방음 기능 불가 등의 사유로 9억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하고



제주 최초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작은 영화관’이 내달 한림읍에 개관된다.

신축공사로 변경·진행해 지난해 12월 완공됐다.

한림읍 관계자는 “영화관람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제주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편안하고 저렴하게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며 “작은 영화관과 지역관광을 연계한 시책도 개발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작은 영화관은 43곳(지난해 말 기준)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신 개봉영화를 일반 영화관 관람료의 70% 수준인 6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현석기자

제주대 최우수학과 영어영문·물리교육



제주대학교는 ‘2019년 학과평가’ 결과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학과장 이보라·사진 왼쪽)와 사범대학 물리교육전공(주임교수 김소미·사진 오른쪽)이 최우수학과로 선정

됐다고 8일 밝혔다.

우수학과에는 사회과학대학 언론홍보학과(학과장 최낙진), 교육대학(학과장 변종현) 초등교육과, 생명자원과학대학 바이오소재전공(주임교수 김소미), 해양과학대학 지구해양학과(학과장 이준백)가 뽑혔다. 최우수와 우수 학과에 대해서는 표창장과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번 평가는 국립대학 유사학과를 대상으로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졸업생 취업률과 유지 취업률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등 6개 지표에 대해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전임교원 강의평가 결과 ▷재학생충원율 ▷신입생 충원율 등 5개 지표는 대학 통계와 교내 평가자료를 활용한 직접평가로 이뤄졌다.

윤영유 제주도 해녀정책팀장 수필 신인상



윤영유(사진)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장이 수필가로 등단했다. 계간 ‘인간과 문학’ 봄호(통권 29호)에서 ‘우도인의 물에 대한 지혜’와 ‘꿈의 노트’ 두 편이 수필 부문 신인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우도면장을 지낸 윤 팀장은 우도가 고향으로 이번 등단작에도 우도 소재 작품이 있다. ‘우도인의 물에 대한 지혜’로 인생을 물에 비유하면서 물의 지혜를 살려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물의 철학을 활용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제주도청 문화동아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 팀장은 수상 소감에서 “인연은 억지로 이어지려해도 마음대로 안된다. 좋은 인연은 인생을 바꾼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인연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맺어 우도를 문화의 섬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제주시새마을회 플라워버킷챌린지 참여



제주시새마을회(회장 김창기)는 지난 4일 플라워버킷챌린지에 참여해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회장 전문수)로부터 전달받은 꽃을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의 안창준 회장과 용담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순자 회장에게 전달했다.

등정



어선사고 수습 대책 논의

◇위성곤 국회의원 지난 7일 307해양호 화재사고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찾아 실종선원 수색방안 등 대책을 논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공직기강 확립 철저 당부

◇김덕홍 조천읍장 지난 6일 팀장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무단이석 금지 및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도서지역 요일별 배출제 홍보

◇송호철 대정읍장 최근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요일별 배출제 활성화 및 탄소포인트제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올해 주요사업현황 점검

◇오영관 송산동장 지난 5일 직원회의를 열고 2020년 주요사업현황 등을 점검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서흥동주민자치위 보건소 방역팀 방문



서흥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상수)는 지난 6일 서귀포보건소 코로나19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해 간식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학생건강증진추진단 운영보고서 발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난해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의 운영 사업 활동 보고서와 사업 운영 사례집을 한 권으로 묶은 운영·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1년 간 주요사업 결과와 마음건강 상담 사례, 정서위기학생 지원 후기 등이 담겼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를 도내 초·중·고교와 모든 교육기관에 배포하겠다”며 “추진단의 마음건강 통합 지원시스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더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석연 총장 플라워버킷챌린지 동참

제주대학교 송석연 총장이 지난 5일 김대형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의 지명을 받아 ‘플라워버킷챌린지’에 참여했다. 송 총장은 김대형 회장을 대신해 총장실을 방문한 강문성 제주상공회의소 사무부장에 꽃바구니를 받았다. 송 총장은 “화훼농가를 비롯해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 총장은 다음 주자로 양윤경 서귀포시장과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을 지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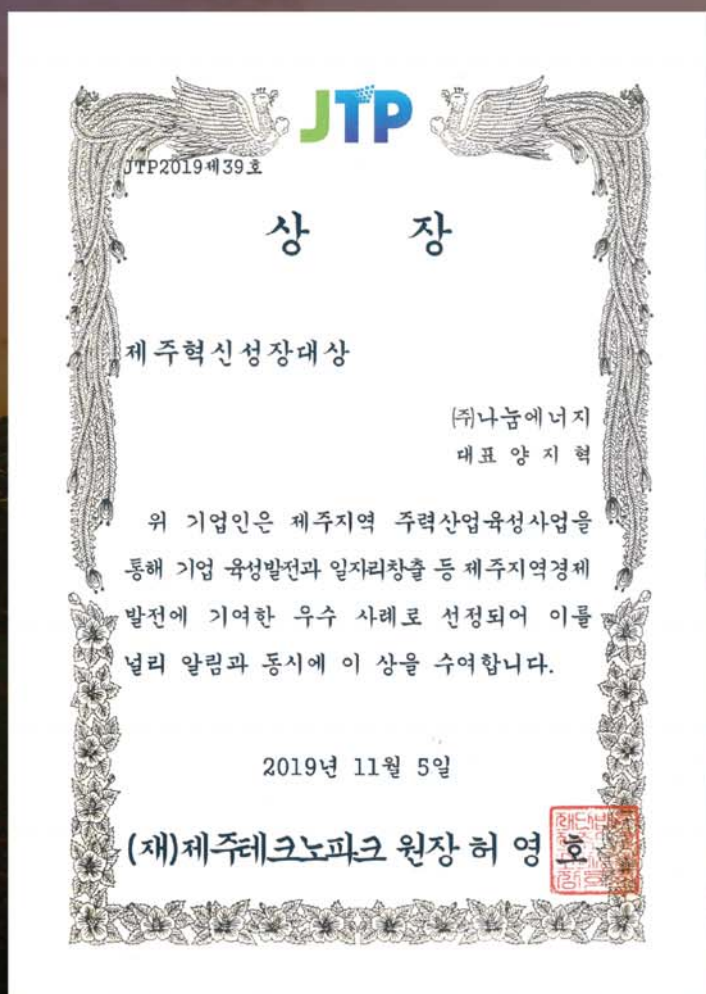
씨수말 ‘메니피’ 말산업대상 공로상 수상

씨수말 ‘메니피’가 미디어피아(대표 김문영)가 주관한 제22회 말산업대상에서 공로상을 수상했다. 메니피는 2006년 11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2012년부터 6년 연속 씨수말 순위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씨수말로 인정 받았지만 지난해 6월 교배를 마친 뒤 급성 심장지로 사망했다. 이에 렛츠런팜제주는 지난 2월 20일 메니피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추모 동상 제막식을 열었다.



한국메카닉스 대구·경북에 제주감귤 전달

제주 출신 허영배 대표가 이 운영하는 부산 소재 (주)한국메카닉스는 지난 6일 대구·경북 소재 의료법인재단 대구경상병원(이사장 한상섭)에 300만원 상당의 한라봉 200상자를 전달했다. 재외제주도민회 총 연합회장을 역임한 허영배 대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쓰는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면역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제주 감귤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